

어떤 부끄러움은 평생 간다. 그런 부끄러움은 잠이 오지 않는 밤 이런 저런 생각의 여정 끝에 다다르기도 하고, 샤워하며 무심코 떠올리는 잡다한 기억 중에 맥락 없이 끼어들기도 한다. 부끄러운 순간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 거울이라도 마주하고 있을라치면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더 없는 혐오에 빠진다. 그런 종류의 기억은 결코 미화되지 못한 채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기억의 회로 한 가운데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박대당할 짝사랑에 달떠 있는 소녀, 그게 나다.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풀고 나는 모닥불 앞에서 춤을 췄다. 남자 거북이 후드 티에 흰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분홍신이라도 신었는지 모르겠다. 원시인들이 불 앞에서 구애의 춤을 추듯 내가 그랬다. 내 존재를 그녀들이 알아주기를 바라, 입에 칼을 넣다 뺄 수 있었다면 그렇게라도 했을 것이다. 감 없는 나방들이 불 곁으로 몰려들었다가 불기운에 날개를 그슬리기도 하던 여름 밤, 불은 뜨겁고 밤공기도 뜨겁고 춤추느라 내 뺨은 달떴다. 고개를 쳐들고 팔다리를 배배 꾀 그 춤은 학교 수학여행 때 반응이 좋았다. 껌추춤이나 추는 변변찮은 머슴애들 틈에서야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쾌한 춤'을 흉내 냈다. 엄마는 유쾌할 때면 참외 같은 짓가슴을 양손으로 흔들며 보여주는 클럽의 댄서였다. 그때 내 짓가슴은 토마토보다 작았기 때문에 짓가슴을 흔들며 보이는 동작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엄마 춤이 십구금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끼아, 아이들의 소리가 환호였는지 경악이었는지 그때는 감이 없었다. 응답받지 못한 내 구애의 춤이 떠오르면, 또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변주된 내 비참한 구애의 춤의 말로를 떠올리면……, 아, 거울 속의 내 얼굴이 화끈해진다.

애당초 K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에 입단한 것이 신통했다. 시골에서 인근 지방 도시로 떠나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리 잡곤 했던 우리 동네에는 K합창단원은커녕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조차 드물었다. 그럼에도 내가 K합창단에 지원한 것은 순전히 부화뇌동한 것이었는데 5학년 때 나랑 한 반이었다가 좋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딴 동네로 이사 간 친구가 K합창단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 나는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며 덩달아 K합창단에 지원했다. 밤에 주로 일하는 엄마는 피곤해하면서도 호기심이 동한 듯 오디션에 기꺼이 동행해주었고, 한 달을 준비한 그 친구는 떨어진 반면 나는 놀랍게도 합격했다. 판따라 피는 못 속여, 엄마는 손님들에게 자랑스레 떠벌렸지만 그것도 잠시 뿐, 입단 초기에 학부형을 대동하는 모임이 잦았기 때문에 얼마 못가 성가셔했다. 그런 모임 때마다 수면스케줄이 망가지기도 했거니와 치맛바람 센 정숙한 엄마들과 어울리기가 엄마로서는 껴나 거북했을 것이다.

오디션에 갓 합격하고 성취감에 도취된 우리들이 라디오 녹음용 연주실에 앉아 이런저런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을 때, 연주실 뒤편에서 엄마들은 사뭇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 딸의 뒤통수를 마냥 바라보았다. 그 즈음의 내 심미안이란 피부 나이라던가 원단이 좋은 옷이라던가 따위의 것들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수준이었지만, 엄마들의 차림새는 우열을 가리기에 난해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흔 남짓한 여성의 미적 기준은 아마도 젊음과 미모의 유지, 혹은 세련되고 고상한 취향, 이도 저도 아니면 귀티와 부티였을 텐데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엄마는 참으로 비대칭적인 입지를 취하고 있는 편이었다. 엄마는 어려서 나를 낳은 데다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까지 했으나 고상이나 귀티랑은 한참 멀었다. 게다가 엄마는 첫 모임에 가슴골이 드러난 붉은 홀복 원피스에 벨로아 재킷을 입고 왔다. 엄마의 심미안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 차림은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무척이나 도드라졌고 대담무쌍했으며 야했다. 그즈음 우리도 옆자리 아이와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엄마들의 그것은 우리들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맹렬했을 것임이 지금은 상상이 된다. 아무튼 엄마는 두어 번 모임에 참석하다가 곧 돈만 내는 보호자 그룹에 합류했다.

합창단에는 연습 때 단원들의 간식을 챙기고, 야외 촬영할 때 촬영지를 답사하고, 공연 때 단원들 매무새를 만져줄, 즉 매니저로서 일해 줄 엄마들이 필요했는데, 의외로 많은 엄마들이 이 일에 자원했다. 그 중에 대장급인 엄마가 있었는데 바로 메리 엄마였다. 그녀는 첫날부터 여러 엄마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다. 큰 키에 검정색 나시, 검정 나팔바지, 선글라스를 걸친 세련된 차림 때문이었다. 과연 그녀는 우리 기수가 졸업할 때까지 온갖 잡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고락을 같이 해주었다. 일례로 일본 공연 갔을 때 그녀는 동행한 엄마들 세 명과 함께 64벌의 한복을 다리고 64명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런 엄마들의 몫은 대체로 돈 들고 고생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식의 보상이 있기도 했다. 그녀들의 딸들은 배로 클로즈 업 되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새 질서로 재편되었다. 학교에서야 단연 공부가 짱이었지만 합창단에서 영어나 산수 시험을 칠 리는 만무했다. 성적 기준을 열외로 하고서도 어떤 공고한 질서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나는 평소 질투가 많고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이기려 들었다. 게다가 공부도 썩 잘했고 키도 일찍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급위원이나 반장 같은 것을 도맡아 했고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합창단에서는 그게 안 통했다. 나에게 맡겨지는 일은 많지 않았고 지휘자 선생님은 나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줄을 설 때엔 맨 뒷줄 가생이로 밀려나 눈에 띄지도 않았다. 나는 그 기준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말없이 외곽에 서서 무리 한 가운데의 누군가를 물끄러미,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게 된 순간, 달라진 내 모습에 나는 흠칫 놀라게 된 것이다.

그 해 가을에 K합창단은 LA 교포 소년소녀합창단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합동공연이 잡혀있었고 겨울에는 K방송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쿠오카 N 방송사 어린이 합창단과의 공연도 잡혀있었다. 굵직한 공연 일정 외에도 지방방송의 어린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의 로고송 촬영과 그 밖의 특별 촬영분이 수시로 생겨나서 우리는 갈 길이 바빴다. 노래를 잘 해서 뽑혔다고는 해도 본격적으로 성악 교습을 받은 아이는 많지 않았다. 동요 독창을 하듯 진성으로 지르면 기껏해야 높은 미가 최선이지만 3부로 편성된 합창곡은 동요라 해도 높은 솔, 높은 라b까지 올라갔으므로 가성발성법을 익혀야 했다. 우리는 연습 마칠 때마다 한 줄로 서서 발성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고 임시로 성부를 배정받았다. 합격한 사람은 집에 갈 수 있었고 불합격은 남아서 추가 연습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번 테스트에는 불합격자만 재시험을 받았다. 내가 듣기에 가성발성은 늑대 울음소리 내듯, 힘 빼고 "우"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지휘자 선생님은 나를 끝까지 불합격시켰다. 나는 가끔 메조소프라노로 올라가기도 했으나 주로 알토로 배정 받았다. 아무리 각각의 음색에 맞는 성부로 배정받는다곤 해도 잘 한다 싶은 애들은 어지간하면 소프라노로 갔고 약간 아쉽다 싶은 애들이 메조소프라노로 갔으니 알토에 남은 애들은 목이 쉬었거나 까부는 남자애들이거나 나 같은 어중이떠중이의 집합이었다.

나는 알토에 앉아서 소프라노 쪽을 관찰했다. 개네들은 피부 빛부터 옷 입은 모양새까지 어딘가 때깔이 좋았다. 이미 두어 차례 동요대회 로고송 촬영 때 알아보았다시피(우리는 울동을 하면서 로고송을 불렀다.) 무용을 배운 아이도 여럿 있었고, 당시 아동복계의 베르사체였던 개구리 로고의 김민제 아동복을 입고들 왔다. 노래는 당연히 잘 했고 사립학교 교복에 커다란 악기 케이스를 메고 오는 아이도 눈에 띄었다. 이런 집합들의 밴다이어그램 한 가운데에는 메리가 있었다.

메리는 요셋말로 합창단의 잇걸(it girl)이었다.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창작동요제 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다 언제나 깔끔한 어린이 정장을 입고 다녔으며 발군의 무용 실력으로 우리가 군무를 할 때 앞에서 독무를 했다. 또 플룻 가방을 메고 다녔고 서울에서 나서 서울 말씨까지 썼다. 오 플룻이라니, 개구리 왕눈이가 연연에 올라 앉아 구슬피 부르던 그 피리가 바로 플룻 아니던가. 플룻은 소리도 청초했거니와 '플룻'하고 발음할 때 입 안에 남는 음감이 무지개 연못

의 풀잎처럼 싱그러웠다. 물론 나 말고도 플룻을 처음 보는 촌스런 소프라노들이 있었다. 개중 하나가 메리야 개구리 왕눈이 붙어봐, 하고 청하면, 메리는 전용케이스 안에 용으로 감싸진 은빛 플룻을 조심스럽게 꺼내 개구리 왕눈이를 연주해 주었다. 막상 꺼내놓고 보면 플룻은 바이올린만큼 멋스러운 모양새는 아니고 생각보다 빈약했지만 메리의 연주만큼은 왕눈이 피리 소리만큼이나 신비롭고 로맨틱했다.

그쯤 되면 현지가 나섰다. 현지는 아이들이 자기에게도 청해주길 기다리는 김새로 팬스레 제 바이올린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메리와 같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현지는 아역 탤런트 출신이었다. 지방방송국의 아역 탤런트라고 해봐야 지방방송 어린이 프로의 리포터를 한다거나 백화점 전단지 의 아동복 모델을 하는 따위가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아는 체를 했다. 하지만 현지는 메리만 한 아우라 없이 나대기만 좋아해서 아이들은 현지를 아니꼬워했다. 이번에도 나서고 싶은 속셈이 뻔히 보이는 터라 아무도 현지더러 해보라고 하지 않자, 현지는 짐짓 긴 목을 가우뚱하며

"나도 할 수 있다, 개구리 왕눈이."

하고 메리 옆에 슬쩍 끼어들어 개구리 왕눈이를 켰다.

다같이 현지를 꿀갈잡다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합창단의 공주님, 메리의 진면모가 드러난다.

"멋져, 현지야. 난 바이올린은 잘 못 켜는데. 비브라토가 능숙하네!"

메리는 감탄하면서 토실한 볼에 연신 보조개를 지으며 귀염성 있게 말한다. 그러면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리앙투아네트를 알현한 뒤바리 부인처럼 현지의 얼굴에는 오만한 만족과 표독스런 기쁨이 선연하게 베어 나오는 것이다.

"고마워, 메리야. 너도 플룻 잘 붙어."

"당연하지. 메리는 플룻 대회에서 상도 받았단 말이야!"

못내 밍살스러운 듯, 결국 슬기가 끼어들어 현지를 쏘아붙였다. 늘씬한 스포츠 걸 타입에 교정기를 낀 슬기 또한 메리와 같은 사립학교였는데 메리 옆에 늘 시너처럼 붙어 다녔다. 현지는 니가 뭘데, 하는 표정으로 슬기를 싸하게 찌려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탁 소리 나게 덮었다. 메리는 멋쩍어하며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방싯했는데 입술 끝에 조그맣게 덧니를 드러낸 얼굴이 실로 사랑스러웠다. 현지든 슬기든 메리는 누구에게나 관대했으니, 아이들은 언제나 메리 주변에 서성대며 별 내용도 없는 말로 메리에게 주접대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였다.

4월에 입단했지만 단복을 맞추고 봄 분기 로고송을 촬영한 것 외에 발성법만 들입다 배우다가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았다. 곧 창작동요 특별 촬영이 기획되어 있었으므로 방학 첫날부터 매일 2시간씩 연습이 잡혔다. 우리는 곧 1박 2일의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집중적인 발성 훈련과 최종 성부 배정이 목적이였다. 방학이면 나는 교회건 절이건 가리지 않고 수련회라면 다 따라다녔다. 홀로 나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따로 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바깥바람 쐬 일이라곤 수련회 밖에 없었다. 그러니 합창단 수련회를 앞두고 내가 얼마나 설레었겠는가.

7월의 마지막 날이자 대서였던 수련회 날, 나는 잔뜩 들떠있었다. 숙소로 배정받은 콘도는 영영 거기 살고 싶을 만큼 근사했고 우리 조에는 메리까지 있어서 나는 더더욱 기분이 좋았다. 연이은 연습 사이의 물놀이는 감질났으며 무엇보다도 난생 처음의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한여름 밤의 불꽃은 이제껏 개척되지 못한 내 의식의 어떤 영역을 건드렸고 나는 불 앞에서 술에 취한 것 같은 쾌감과 황홀감을 맛보았다. 내 부끄러운 구애의 춤을 선보인 것도 이때였다. 장기가 나보다 100개는 많았을 메리나 현지는 캠프파이어의 조별 장기자랑 출연을 끝내 사양했다. 그런 무대는 올라간 사람이 풀사나울수록 보는 사람이 신난다는 것을 그녀들은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 이 춤이

내 기억 밑바닥에 오롯이 아로새겨질 부끄러움의 원형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한 채, 나는 그저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대로 뛰어나갔다.

풍뎡이 한 마리가 방바닥에서 목격된 것은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차례로 샤워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오래 걸릴 줄 알면서도 우리는 굳이 욕실 앞에 한 줄로 서서 질서를 지키는 양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검고 반들반들한 벌레 등을 보고 소리쳤다.

“저거 풍뎡이 아냐?”

풍뎡이는 동요하는 우리에게는 아랑곳없이 느지럭느지럭 제 갈 길을 갔다. 잡아야 하나 어쩌나, 수군덕댔지만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풍뎡이의 동태를 살피고만 있는데 풍뎡이는 돌연 발길을 돌려 누군가 벗어놓은 가방으로 다가갔다.

“어어, 저거 내 가방인데…….”

미간을 잔뜩 오그린 채로 소리친 것은 메리였다. 슬기가 메리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 무서워!”

무서워하는 공주님을 두고 누군가는 벌레를 때려잡는 하녀가 되어야 했지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 사실 나야 집에서 바퀴도 잡고 그리마도 잡지만 어쩐지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바로 그 때 막 샤워를 하고 나온 아이가 미애였다. 미애는 대변에 상황을 파악하고

“풍뎡이잖아?”

하고는 화장실 안의 휴지를 둘둘 말아들고 이제 막 메리 가방 위로 기어 올라가려는 풍뎡이를 집었다. 오히려 풍뎡이를 잡아드니, 엄머, 하역, 하는 놀람의 탄식들이 터져 나왔다. 미애는 탄식들에게 씩 웃어 보이며 창문으로 풍뎡이를 가볍게 떨어뜨렸다.

“풍뎡이는 괜찮아. 시골에서 많이 봤어.”

“그럼 귀뚜라미도 잡을 수 있어?”

낮에 귀뚜라미가 옷에 붙어 곤욕을 치른 아이가 물었다.

“그럼, 귀뚜라미는 먹을 수도 있는 걸.”

용감한 미애에게 고마워하고 안도하던 분위기가 귀뚜라미를 먹는다는 말에 일순 술렁였다.

“그게 안 먹어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바삭하고 맛있어.”

미애가 눈치채고 항변조로 덧붙였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미 징그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누구 하나 거들어주지 않자 미애는 뚱한 표정으로 구석에 가서 젖은 머리를 털었다.

풍뎡이의 긴장이 사라진 자리를 탁한 침묵이 채웠고 나는 가만히 있기가 불편해져서 팬스레 가방 속을 휘저었다.

“여긴 에어컨이 없잖아! 더워 죽겠어!”

슬기가 선풍기의 3단을 누르며 불평을 했다. 나도 조심스레 덧붙였다.

“콘도가 후지네.”

미애는 원래 아는 아이였다. 그 애는 건넌동네 비디오 가게 딸이었고 나랑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에 없는 비디오를 빌리러 가끔 개네 가게에 가곤 했다. 언젠가 한번은 미애가 가게를 보고 있어서 그 애한테 빌린 적도 있었다. 한 동네에 살다보니 우리는 방송국을 오가면서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고 초반부터 말을 나누게 되었다.

“너 S초등학교 6학년 7반 배보리 맞지?”

“응.”

“잘 됐네, 앞으로 집에 갈 때 같이 다니면 되겠다.”

“으응, 그래…….”

그러나 미애랑 같이 다닐 일은 한동안 없었다. 그 애는 합격에 소프라노였던 반면 나는 불합격에 알토였기 때문이었다. 기다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나는 한편으로 안도했다.

미애는 S초등학교 체육복을 곧잘 입고 다녔다. 소프라노의 김민제 아동복 무리 속에 체육복, 더군다나 단이 손목, 발목 위로 땡강 올라오는 미애의 체육복은 눈에 확 띄었다. 미애는 살집도 있는 편이었는데 곧 졸업할 거라고 엄마가 체육복을 안 사준 모양인지 엉덩이도 끼고 가슴도 끼었다. 옷이 끼기는 사복도 다룰 바가 없어서 목이 늘어진 티셔츠조차 가슴 부분이 팽팽했다. 어느 날은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하면서 표정이 나쁜 아이들을 지적했는데(우리는 최대한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해야했다.) 미애도 지적받았다.

“김미애, 좀 웃어라! 투탕카멘같이 뻗뻗하게 그게 뭐냐? 주문 외냐?”

아이들은 '투탕카멘'에서 까르르 넘어갔다. 사실인즉 앞머리를 일자로 내린 미애의 슬진 단발머리는 고대 이집트인의 가발 같았고, 가무잡잡하고 맨질맨질한 얼굴에 거무스름한 눈 끝은 찢어지기까지 했으니 투탕카멘이 억울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달동네 S초등학교의 체육복을 입은 왕가슴의 투탕카멘-나는 미애와 어울리기 싫었다. 불합격반 연습이 없어진 이후로도 오늘은 살 게 있어, 오늘은 들릴 데가 있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나는 미애를 피하곤 했다.

수련회에서 돌아오자 창작동요 특별 촬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 촬영은 신작동요 보급 차 한 주에 한 곡씩 모두 여섯 곡을 선보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각 곡은 곡의 성격에 맞게 두 명 내지 다섯 명 정도의 중창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로고송 이후 첫 촬영인데다 중창은 로고송의 군무와는 달리 클로즈업 샷이 많을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 야단이었다. 하지만 출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역시 오디션을 봐야했다. 결과는 메리와 슬기, 현지 등 예쁘고 노래 잘 하는 애들 외에 수련회에 따라간 엄마들의 딸들과 몇 안 되는 남자애들 전부가 뽑혔다. 하지만 의외의 당첨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졸렬한 심보에 불을 붙였다.

합창단에 남자 단원들은 다해야 모두 네 명이였다. 개들은 하나같이 장난꾸러기였고 자기네끼리만 몰려다녔는데 제 발로 입단했다기보다는 엄마에게 떠밀려온 것 같았다. 연습 때마다 떠들다 걸리기 일쑤였고 합격 불합격 테스트에서도 개중 하나가 떨어지면 창피해하기는커녕 저네들끼리 킬 킬거리고 난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에서의 남자단원들 입지는 여자단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이번 촬영만 봐도 남 녀가 짝 지어 부르는 편이 여자들끼리 부르는 것 보다 낫다는 게 상식적인 모양인지 아무도 남자애들이 죄다 뽑힌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다.

찬이는 넷 중에서 유독 잘 생긴 아이였다. 키까지 훌쩍 커서 제 엄마 키를 넘어섰지만 목소리만은 애기라 동요를 부르기에 적합했다. 찬이 엄마도 메리 엄마처럼 합창단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활달한 메리엄마와는 달리 학중이 같은 롱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아주 우아스러운 사람이었다. 찬이도 눈에서는 장난기를 숨숨 쏘아대는 주제에 차림만큼은 엄마의 취향대로 귀공자처럼 꾸미고 다녔다. 워낙이 남 녀가 내외하는 분위기라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합창단에는 찬이를 좋아하는 애들이 여럿 있었다. 내 짐작이 맞았다면 메리도 찬이를 좋아했다. 찬이 앞에서는 새침했지만 슬기 같은 애들이 찬이랑 얘기하기라도 하면 메리는 개들을 조정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불러 은밀하게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런데 이번 촬영에서 찬이가 미애의 짝이 되어 둘이 한 곡을 부르게 된 것이다. 합창단의 최고 킥카 눈에 든 찬이와 투탕카멘의 그 미애가 말이다.

녹화 날 미애와 찬이는 색깔만 다른 폴로셔츠를 맞춰 입고 아랫도리는 각자 입던 청바지를 입

었다. 다른 팀들은 요정이다 뭐다 해서 어린이다운 콘셉트였던 반면 이들 둘은 수수하고 학생다웠다. 다만 중학생 같았을 뿐이다. 미애가 노래는 확실히 잘 했다. 덩치가 있어서 성량이 좋았고 진성으로 부르는데도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가 났다. 그에 반해 찬이 소리는 뽀족했지만 미애 목소리에 묻혀서 튀지 않았다. 둘이 부른 노래는 <기차를 타고>였는데 둘은 녹음실에서 녹음 먼저 한 후 촬영은 잠자리채 들고 야외에서 한다고 했다. 나는 요정 차림으로 스튜디오 촬영을 한 메리와 현지도 부러웠지만 그보다 미애에게 공연히 심술이 났다.

떠들썩했던 촬영이 끝난 다음 날, 나는 미애랑 집에 같이 갈 기회를 잡았다. 오랜만에 같이 가는 터라 미애는 반가워했지만 내 관심은 찬이와의 촬영이 어땠는지에만 쏠려 있었다.

“찬이 어땠어?”

“찬이 개, 생각보다 착하고 어른스럽더라.”

“왜?”

“내가 덩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줬어.”

순순히 대답하는 미애 얼굴에 언뜻 희색이 도는 것을 나는 교활하게도 놓치지 않았다. 그날로 나는 집에 가서 찬이 이름으로 된 가짜 편지를 썼다.

“있잖아, 찬이가 이거 너 주래!”

“뭐야, 이게?”

“몰라!”

미애는 곰돌이 모양의 봉투를 받아들고서는 곧 바로 열어보려 했다.

“안 돼! 그런 건 이따가 봐야 돼.”

당황한 내가 말렸다. 그리고 나는 연습 내내 미애 쪽을 흘금거리며 미애 반응이 어떤지 살폈고 여기에 살을 붙여 메리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그날 이후 나의 광대짓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구애의 춤이 시작되었다.

찬아, 니가 날 그렇게 생각해왔다니 기쁘다. 그렇지만 나는 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난 노래만큼은 잘 부르고 싶어.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합창 하는 것이 진짜 즐겁다. 합창단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널 만난 것도 그래. 지난번에 같이 노래 불렀던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아이스크림 사준 것도 고마웠어.

아니야, 미애야. 난 니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메리보다도 더. 지휘자 선생님은 널더러 투탕카멘이라고 했지만 나는 니가 클레오파트라 같다고 생각해. 니가 정말 좋아.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찬이 넌 무척 눈에 띄어. 잘생겼고 착해. 어릴 때부터 쪽 그랬겠지? 나랑 어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메리 같은 애랑은 몰라도……. 니가 날 좋아한다니 믿어지지 않아. 날 좋아한 남자는 니가 처음이거든. 난 너무 평범해서 나 같은 애 마음을 넌 절대 모를 거야.

미애의 답장에 찬이를 가장한 내가 답했고 미애가 다시 답하길 반복했다. 이 흥미진진한 비밀 연애-사실은 한쪽 연애를 아는 것은 처음엔 나와 메리와 슬기뿐이었지만 편지가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할 무렵엔 현지도 알게 되었고 이후엔 현지와 같이 다니는 아이들도 알게 되었다. 미애가 연습 중에 혼자 팬스레 웃는다던가 몽근한 눈빛으로 찬이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나는 메리한테 열심히 눈짓을 보내며 부러 과장된 조소를 날렸다. 나는 그 때 내가 한 짓의 의미를 몰랐다. 남의

진심을 훑쳐놓고서 몰래 모여 야한 비디오를 보듯 돌려보며 웃었다. 타인을 속이고 속이는 것을 보면서 그걸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더 나빴던 것은 내가 그 야비함을 미끼로 메리의 환대를 구걸했다는 거다. 마음속에 꺼림함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메리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자랑스러운 유대감을 안겨 주었고 메리가 안달하는 눈빛으로 내 눈을 보며 얘기를 재촉할 때에 나는 내가 메리와 어울리는 친구이며 사실은 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메리와 가까이 있을 때 그 애 목덜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베이비파우더의 냄새와 메리의 레이스원피스 속 노방 속치마가 내 무릎에 부딪힐 때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하며, 언젠가 내게도 나눠 줬던 고급 제과점의 상투과자의 맛, 이런 달콤함들은 이미 그것에 도취되어버린 내 허영심에 은밀하게 불을 지폈다. 나는 밀사가 되어 비밀편지를 공주님께 전했고 이 공로로 공주님 무리에 일시적으로나마 낄 수 있는 포상을 받았던 것이다.

연습 중간에 미애가 사라졌던 날, 나는 억지로 막아놓은 탓에 괴어있던 꺼림함이 그제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새똥을 맞은 것만큼이나 재수 없다는 투로, 내가 미애 같은 애를 왜 좋아해, 찬이가 내지른 것이 쉬는 시간의 일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의 웅성거림 속에 미애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연주실을 나갔다. 미애가 나가자 아이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고 찬이는 그조차도 기분 나쁜 모양인지 뽀 소리를 질렀다.

“뭐라는 거야? 씨……발!”

상대를 배려하기에는 찬이 또한 어렸다.

아이들이 하나 둘 가방을 싸고 집에 돌아갔지만 미애 자리에는 악보집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옆자리 애한테 잠시 빌려주느라 짐을 챙길 때 미처 꾸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미애의 빈자리를 맴돌며 찬이의 분노와 미애의 모욕을 어찌 감당해야하나 생각했다. 두려움으로 숨이 막혀왔다. 그 때 막 연주실 문을 나서려는 메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반가워서 얼른 메리를 불렀지만 메리 옆에는 슬기가 있었고 슬기는 나를 외면하며 메리 손을 잡아끌었다. 메리는 내 쪽을 잠시 보았을 뿐, 안됐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현지가 날 보고 다가와서 한 마디 던졌다.

“그거 네가 전해주면 되겠네. 너희 같은 학교지?”

니가 벌린 일이니 그걸 전해주는 것도 네 몫이야,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메리도 슬기도 현지도 모두 집에 돌아가고 연주실에 남은 건 나 혼자였다. 나는 미애의 악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김미애! 김미애? 미애 무슨 일 있나?”

미애가 일주일째 연습에 빠진 날, 지휘자 선생님이 미애를 챙겼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미애랑 집 가까운 사람?”

나는 흠칫 놀랐고 내가 지목되지 않기를 빌었다. 그러나 누군가 냉큼 고해바쳤다.

“배보리요.”

“보리야, 니가 미애 집에 한 번 가 봐라, 왜 안 나오는지.”

그리하여 나는 이번에는 지휘자 선생님의 특사가 되어 미애를 만나러 가야했다. 그러나 그 임무는 메리 때와는 달리 그간의 내 허영과 야비함의 대가를 한꺼번에 치러야 할 것만 같아서 막중하게 다가왔고, 나는 무서웠다. 나는 두 가지 답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미애한테 허심탄회하게 다가가 그간의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을 빼는 것이었다. '메리가 시킨 거야' 라며, 비겁하게도.

토요일의 늦은 오후, 8월의 해는 길어서 여섯 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날이 짹짹했다. 그동안 갖고만 있던 미애의 악보집을 들고 나는 집을 나섰다. 미애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도 산 쪽으로 더 들어가서 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다세대 주택들 중 하나였다. 나는 미애네 집 녹슨 철제문 앞까지 가기는 했지만 차마 문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근처를 한참 배회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 마음은 요리조리 간사한 주사위를 굴렸고 그러다가 미애네 비디오 가게로 가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냥 미애 엄마한테 악보집 맡기고 합창단 나오라고 전해 달라 하자!’

비디오 가게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으니 어쩐지 안심이 되어 가게 안을 뻐끔히 들여다보았더니 매직으로 쓴 ‘점포 정리’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미애 엄마는 비디오 무더기를 끈으로 묶어 정리하며 간간히 계산까지 하느라 무척 바빠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손님들 틈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아줌마, 저 미애 친구 보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미애 지금 없는데”

미애 엄마가 나를 힐끔 보더니 다시 비디오 무더기로 눈을 돌린 채 건성으로 답했다.

“저기, 미애 오면요…….”

“아줌마,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기어들어가는 내 목소리는 성마른 손님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7500원어요. 애, 너 보리라고 했니? 지금 미애 심부름 갔는데 7시쯤 되면 올 거야.”

미애 엄마는 손님이 고른 비디오를 재빨리 봉지에 담으며 나에게 귀띔했다.

‘7시라고? 그럼 쪽지를 남기고 올까?’

아줌마가 하도 바빠 보여 나는 더 비집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다시 미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당장 미애가 집에 없다하니 처음 가던 걸음보다 발이 한결 가벼웠다.

미애네 집 대문은 아까랑은 달리 열려있었다. 열린 문틈으로 미애 할머니가 현관을 활짝 연 채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부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미애냐?”

“아, 안녕하세요? 미애 친구예요”

“오냐. 근데 지금 미애 없는데…….”

“네, 들었어요. 심부름 갔다고. 미애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요.”

“좀 있으면 미애 올 건데 들어와서 기다려.”

할머니가 틀어준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나는 방바닥에 앉아 잠시 땀을 식혔다. 스쿠류에 감긴 해초처럼 먼지 줄기가 치렁치렁한 날개에서 텅텅한 바람이 나왔다. 나는 미애의 앉은뱅이책상에서 어렵잖게 종이와 연필을 찾아냈지만 막상 무어라 써야할지 망설여졌다.

‘미애야’ 다음에 더는 쓰지 못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왔습니다.”

“응, 미애야, 방에 니 친구 와 있다!”

나는 순간, 죄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후다닥 방문 뒤로 숨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였어? 근데 할머니, 나 지금 급해.”

미애가 화장실 간 틈에 나는 집 밖을 뛰쳐나와서 냅다 달렸다.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던 동네 할머니가 달리는 나를 향해 수박씨를 뱉었다. 어떤 개는 내 달음질 소리에 집 밖까지 쫓아 나와 덩달아 짖었다. 나는 리어카를 비켜서 쓰레기 더미를 넘어서 숨이 차오르도록 달리다가 그 골목 끝자락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았다. 미애가 문 밖을 나와 내 쪽을 보며 서 있는 것이 자그맣게 보였다. 그 때 미애는 나를 보았을까? 나는 다시 돌아서서 그냥 달렸다.



늦여름에 해가 지고 있었다. 숨을 고르려 큰 숨을 들이쉬니 몸 속 공기랑 똑같은 온도의 습하고 축축한 공기가 향긋한 소독약 냄새를 달고 들어온다. 방역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동네 꼬맹이들도 따라 달려 나온다. 개중에 어린 여자아이는 선녀라도 된 양 날갯짓하며 나풀거린다. 아직 남은 지열에 아스팔트 위의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여름 노을은 투명한 아지랑이의 떨림에 주홍빛을 더한다. 하늘도 공기도 땅도 주홍색이 되어, 나는 주홍빛 바다 속 물고기가 된 것만 같다. 흘러내린 땀으로 따가워진 눈, 끈적이는 목덜미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 숨을 고르며 흐느적흐느적 걸어가던 그 때의 기억이 나에겐 여름의 기억이다. 여름은 저 가고 그렇게 나는 내 유년의 끝을 흘려보냈다.

그날 이후 나는 미애를 다시 보지는 못했다. 엄마한테 들으니 미애네는 서울로 이사 갔다고 했다. 합창단에서의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왔다. 나에게 말 거는 애는 좀처럼 없었고 지휘자 선생님이 나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나는 늘 그래왔듯 맨 뒷줄 가생이에 섰기에 좀처럼 카메라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엄마는 마흔이 되자 댄서 생활을 접고 단란주점을 차렸다. 댄서 시절의 단골들이 새로 연 가게의 단골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게는 그럭저럭 자리가 잡혔다. 나는 합창단을 졸업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악 레슨을 받았다. 그것은 엄마의 꿈이자 허영이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당신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기를 바랐고 성악을 하는 것이야말로 지고한 세계로 진입하는 길인 양 여겼다. 평범한 재능이었지만 잘 같고 뉘오니 나도 어느 정도는 곱고 유연한 소리가 났다.

단란주점 집 딸로, 퇴폐를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싶었던 사춘기를 지나 나는 어른의 세계로 진입했다. 나는 엄마의 바람대로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에 성악전공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리와 슬기와 현지를 그곳에서 만났다. 그곳 또한 합창단이었다. 달라진 점이라면 나는 어른이 되었기에 더는 그녀들을 향한 구애의 춤을 추지 않게 되었다는 점 정도. 그러나 음대에 들어간 것이 엄마에게나 나에게나 결코 성취가 아니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명했다. 엄마는 형편에 버거워도 입시 레슨비까지는 어찌어찌 마련해주었지만 비싼 음대 등록금과 교수 레슨비를 감당하는 것은 힘에 부쳐했다. 3, 4학년이 되면 자가용을 선물 받는 아이들 틈에서 나는 레슨 아르바이트를 줄기 차게 해냈고 그 돈을 레슨비로 다 썼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 위에 얇게 뜬 채로, 나는 졸업할 때쯤 토익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음반회사 홍보부서에 취직했다.

미애를 다시 만난 것은 야근 후 회사 사람들과 광화문 근처 고깃집에서 늦은 회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 집에는 우리 말고도 집회 참가자였던 듯 한 사람들 몇 무리가 더 있었는데 벽에 세워진 깃발과 피켓들이 그들이 요새 한창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시위자들임을 짐작케 했다. 야근하면서 회사 건물 아래 빼곡한 촛불들을 보며 회사 사람들도 한 마디씩 해냈는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째 집회도 파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취한 누군가가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식당 한 칸의 어느 무리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충분한 비브라토의 여자 목소리였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전공잔가? 전공자라면 이런 떠들썩한 술자리에서 연주하는 것은 질색일 텐데…….’

노래를 접은 지 꽤 되었지만 서당개 3년이라고 내 귀가 쫑긋했던 것은 그 발성이 안정감 있고도 힘찼으며 무엇보다도 소리가 정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소리에 이끌려 무심코 목소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 틈에 선생님 같아 보이는 여자는 익숙한 이집트인의 얼

굴-바로 미애였다.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노래가 전개되면서 고깃집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 주위의 학생들이 먼저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다른 테이블로 번져나갔다. 급기야는 그 이슈에 열성적이던 회사 동료까지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멜로디에 알토와 바리톤과 테너가 합류하여 소리의 곁은 여러 겹으로 어우러졌고 노래가 절정에 달할 때 미애는 그 순수하고 정직한 목소리로 소프라노 화음을 더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고깃집 사람들은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며 풍성한 합창의 물결을 만들었고 그 너너한 울림 속에 미애가 있었다. 입을 열 수도 다물 수도 없는 충격 속에서 나는 한편으로 기뻐고 또 안도했다. 내 결핍이 함부로 짓밟은 씨앗이 내가 모르는 새에 나 같은 건 따라갈 수도 없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여름날에 매듭짓지 못했던 내 감정은 지금껏 기억 속에 어둡게 웅크리고 앉아 나를 좀먹어 왔지만 이제 보니 그 결과는 나를 떠나서 이미 완결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쁨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기뻐으나 기뻐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잘못의 대가에 온전히 대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 합창에 목소리를 얹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고깃집에 출렁이는 공명을 뒤로 하고 물래 자리를 빠져나왔다.

습습한 여름밤의 공기가 폐 안을 채우고 나는 술 취한 물고기가 되어 헤엄치는 듯 한 기분이 되었다. 취한 몸을 흐느적대며 그저 집으로, 집으로 가야겠다고 되뇌는데 어쩐지 내 뒤에 그 여름날의 미애가, 시너도 하녀도 되지 않고서 의연했던 그녀, 그렇게 달렸건만 나는 닿을 수 없었던 합창단 한 가운데 저토록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 미애가 저 멀리서 문 밖을 나와 내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걸으면서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었다.